

미국 소비자물가: 유가발 헤드라인 가속, 근원물가는 오히려 둔화세

2026.09.11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: 유가 충격, 소비자 단계로 넘어오기 시작

8월 CPI는 유가 충격이 소비자 물가로 실제 넘어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자료다. 인플레이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는 현재 국면에서 방향은 악재 쪽이지만, 물가의 기저 흐름까지 뒤집은 수치는 아니어서 그 강도는 제한적이다.

표면 숫자부터 보면, 헤드라인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.1%에서 0.4%로 가속했다. 미국 노동통계국은 이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이 휘발유 가격(전월비 +3.9%) 하나에서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, 에너지 항목 전체도 전월비 -1.5%에서 +2.1%로 부호가 뒤집혔다. 반면 변동성이 큰 식품·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기준 2.5%에서 2.4%로 오히려 내려갔다. 근원물가의 전월비도 0.2%에서 0.3%로 소폭 올랐지만,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숙박(직전월 -2.8%에서 +2.4%로 반전), 항공운임(+2.7%), 무선통신 서비스(+5.9%) 같은 변동성 큰 항목들이 한꺼번에 반등한 결과이고, 이는 기존 등락 범위 안에 있는 움직임이지 새로운 이탈은 아니다. 물가의 실제 바탕을 보여주는 지표들, 즉 식품·주거비·에너지를 모두 뺀 전년동월비는 2.0%로 여전히 낮은 반면, 주거비만 뺀 전체 물가는 전년동월비 3.6%로 높다. 두 수치의 격차 1.6%포인트는 사실상 식품·에너지 가격 변동에서 비롯된 것으로, 기저 물가는 2%대 초반, 체감 물가는 3%대 중반이라는 두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셈이다.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(전체의 약 35%) 역시 총계는 0.3%로 가속했지만, 핵심 축인 자가주거비 환산액(OER)과 실제 임대료는 각각 0.2%에 그쳐 총계 가속에는 숙박비 반등이 섞여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.

정책 영향으로 옮기면, 이번 수치는 연준의 동결 장기화라는 기본 판단을 유지시키되 즉각적인 추가 인상 논거를 새로 강화하지는 않는다. 헤드라인 전월비 0.4%는 시장이 주시해온 위험 수준인 0.5%에 못 미쳤고, 근원 전년동월비 2.4%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분기점을 통과했다. 다만 유가발 위험 시나리오와 원자재발 물가 재상승(리플레이션) 흐름은 이번 자료로 명확히 확인됐다. 소비자보험·건강보험료(자동차보험 전년비 -5.1%, 의료 1.6%) 같은 물가 하락 요인과 에너지·체감 물가 상승 요인이 한 보고서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, 연준 내 인플레이 경계파와 물가 둔화파 사이의 시각차는 이번 발표로 해소되기보다 오는 9월 회의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.

앞으로 볼 핵심은 에너지 기여가 사라진 이후의 수치다. 다음 발표는 9월분으로 10월 14일 예정인데, 여기서 에너지 효과가 빠지고도 헤드라인 전월비가 0.5%를 넘어서면 이번 가속을 '일회성 유가 요인'으로 본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. 또한 항공운임·무선통신·숙박 같은 반등 항목이 9월에도 플러스를 유지하는지, 자가주거비와



임대료가 0.2%대에 머물며 주거비 상승률을 계속 끌어내리는지, 그리고 근원 전년동월비가 2.4%에서 다시 2.5% 이상으로 되돌아오는지가 향후 판단을 가를 관전 포인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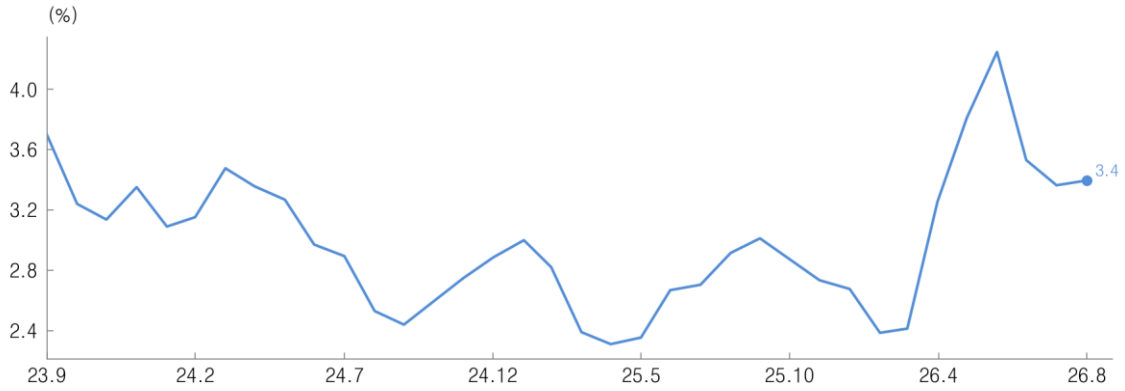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	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9-11 (이번)	8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유가발 충격이 소비자 단계로 실제 전이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킨 자료다. 헤드라인 전월비는 0.1%에서 0.4%로 뛰었고 그 상승분의 3 분의 1 이상이 휘발유(+3.9%)에서 나왔다고 미 노동통계국(BLS)이 직접 밝혔지만, 근원 전년동월비는 2.5%에서 2.4%로 오히려 내려가 기저 인플레이션까지 매파적으로 확증하는 수치
2026-08-12	7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0.1% 상승해 6 월의 0.4% 하락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, 이 반등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하락폭이 줄어든 데 따른 산술적인 효과이고 근원물가(식품·에너지 제외)는 전년동월비 2.6%에서 2.5%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. 새로운 물가 압력이 생겼다고 보다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 가까우며, 이번
2026-07-14	에너지 기저효과가 헤드라인을 -0.7pp 낮췄으나, 코어 CPI 의 실질 개선(2.9%→2.6%)은 미세하고 셉터 월간 모멘텀이 약화 중: 7 월 이후 기저효과 역풍과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서비스 인플레이션 Fed 의 동결 장기화를 지지한다.
2026-06-10	헤드라인 인플레이션 3.8%→4.2%로 재가속했으나 에너지(YoY 23.5%)가 주 원인이며, 코어 인플레이션 2.9%로 미온적 둔화, 셉터 경향은 여전히 진행 중.

8 월 CPI 핵심 지표 요약

지표	전월비	전년비	맥락
헤드라인 CPI(전체)	0.1% → 0.4%	3.4%(전월과 동일)	휘발유가 상승분의 1/3 이상 견인
근원 CPI(식품·에너지 제외)	0.2% → 0.3%	2.5% → 2.4%	전월비 가속에도 전년비는 오히려 둔화
에너지	-1.5% → 2.1%	16.3%	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 전환
휘발유(계절조정)	+3.9%	27.4%	헤드라인 상승분의 1/3 이상 차지
주거비	0.1% → 0.3%	3.0%	비중 최대(약 35%), 숙박비 반등 섞여 중계 가속
근원 상품(식품·에너지 제외)	0.2% → 0.1%	0.7%	사실상 정체 상태 유지
항공운임	+2.7%	+23.4%	근원 물가 반등을 이끈 항목 중 하나
의료비(전체 지수)	0.4% → -0.2%	1.6%	전월비 하락 전환, 연간 상승폭은 낮은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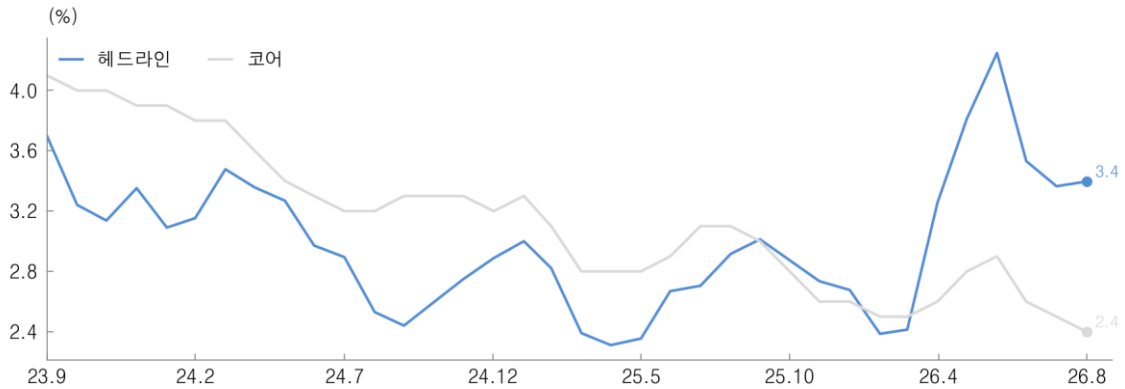
핵심 수치	
지표	값
근원 전월대비(%)	0.3
헤드라인 전년대비(%)	3.4
헤드라인 전월대비(%)	0.4

미국 CPI 상승률(전년비) 3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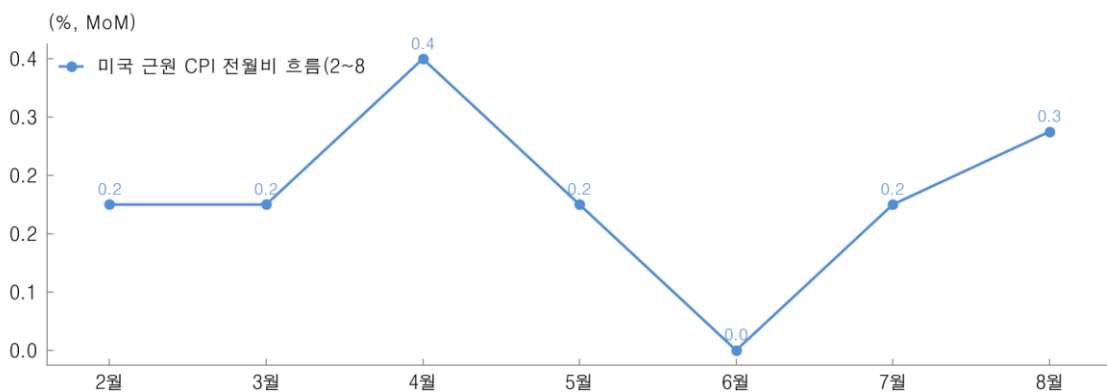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CPI — 헤드라인 vs 코어(전년비) 3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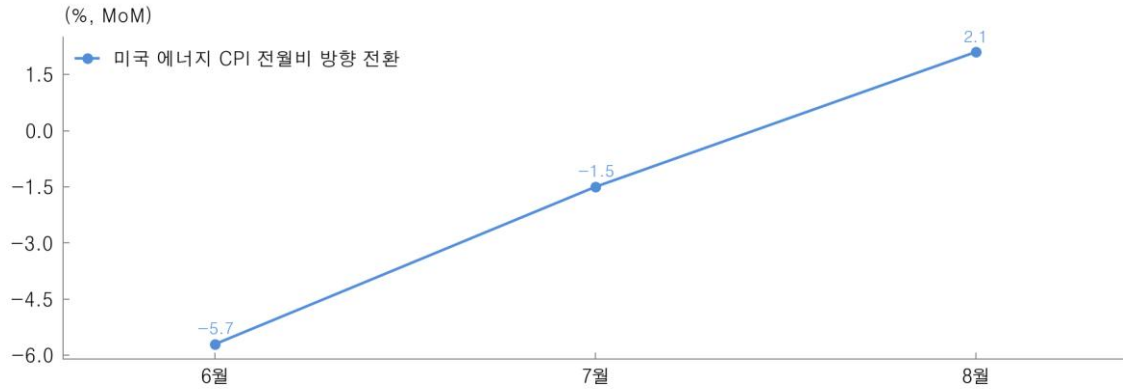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근원 CPI 전월비 흐름(2~8 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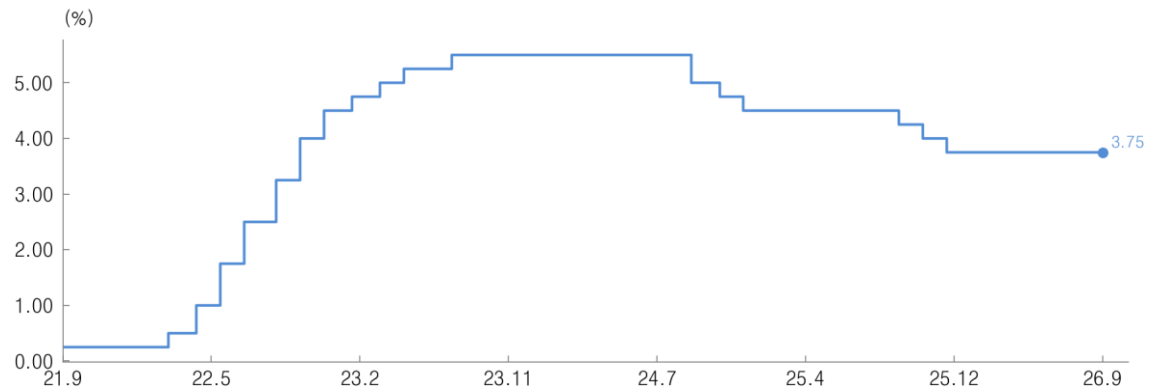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에너지 CPI 전월비 방향 전환(6~8 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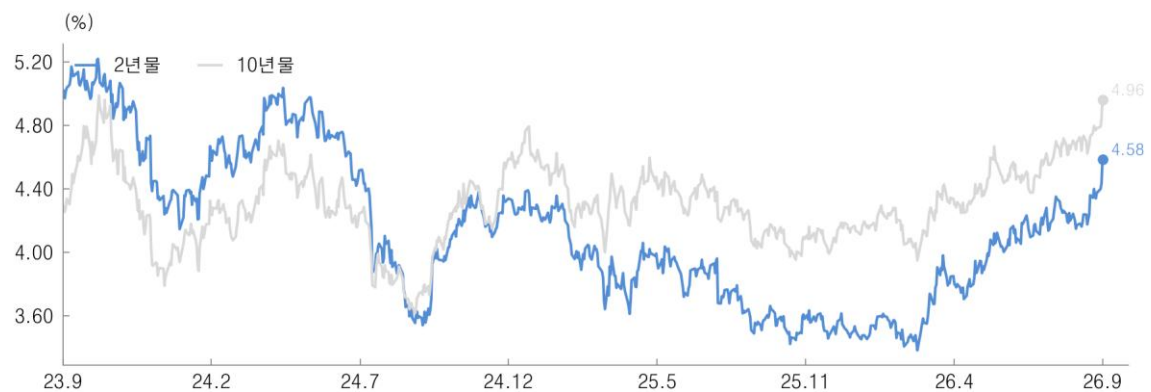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정책금리(연방기금 목표 상단)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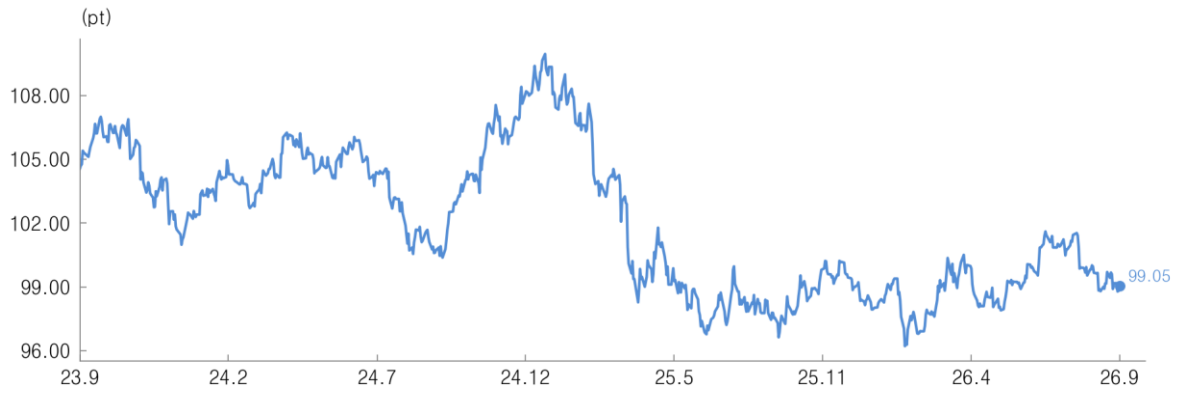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(2026-09-10 기준)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달러지수(DXY) 3 년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